

이슈

2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206호

이해인 수녀 산문집에 글 쓰는 이영애

험한 댓글에 힘들어 목숨 끊은 여성연예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영애

배우 이영애가 이해인 수녀의 신작 산문집에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아내로서 시인의 글을 통해 얻는 위로, 배우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용기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는 25일 출간되는 이해인 수녀의 새 산문집 '그 사랑 놓치지 마라'를 통해 이야기를 공개한다. 다만 그가 쓴 에세이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책 출간 전인만큼 공개되지 않았다.

산문집을 펴내는 출판사 마음산책의 정은숙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그 일부를 소개했다. 이영애는 에세이를 통해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먹여 학교를 보냅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홀로 식탁에 앉아 수녀님의 시를 읽어 봅니다", "여성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거 없는 말과 험한 댓글에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요" 등 이야기를 꺼낸다. 또 이해인 수녀의 새 책도 "아침 식탁에서 읽겠다"는 다짐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정은숙 대표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왔다"며 "이영애가 보내온 원고는 특별히 교정을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좋았다"고 밝혔다.

이영애는 2001년 이해인 수녀와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금까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이번 에세이 역시 존경하는 시인의 작품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공감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014년 5월에도 이해인 수녀의 시를 읽고 "산소 같은 시"라는 소감을 월간 문학사상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영애는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나를 찾아줘'의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나서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수도원에서 보내는 마음의 산문'이란 부제가 붙은 이해인 수녀의 산문집 '그 사랑 놓치지 마라'는 2018년 12월 내놓은 기도시 모음 '세계적의 기도' 이후 이해인 수녀의 신작이자 시와 에세이 등 시인의 생활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벤투호, 오늘 레바논전 필승 해법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 원정을 하루 앞둔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3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막바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아부다비(UAE) | 뉴스1

'원샷 원킬' 황의조, 선제골을 쏘라

역습 능한 레바논, 리드맨 침대축구 이용 "상대 측면 돌파 위협적" 경계 벤투 감독, 황의조 스트라이커 낙점 기민한 움직임·연계 플레이가 관건

H조 순위 (13일 현재)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한국	2	1	-	7	10
2	북한	2	1	-	7	3
3	레바논	2	-	1	6	2
4	투르크	1	-	2	3	-1
5	스리랑카	-	-	4	0	-14

한국 축구대표팀이 레바논 원정에서 승리를 겨냥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한국은 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카밀 사문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원정 4차전을 갖는다.

●'침대축구' 부르는 선제실점, 반드시 차단해야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한 수 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레바논은 민민한

상대는 아니다. 앞서 2차 예선 3경기에서 2승1패(승점 6)를 기록했다. 스트라이커 히탈 알 헬레를 중심으로 한 역습에 능한 한국으로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한 번 리드를 잡으면 집요한 수비에 '침대 축구'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선제 실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벤투 감독은 13일 비디오 미팅에서 레바논의 역습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른쪽 풀백 이용(전북 현대)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 레바논 공격수들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다. 특히 측면이 까다

롭다"며 "왼쪽 윙어는 오른발잡이, 오른쪽 윙어는 왼발잡이다.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 전개도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최고의 득점 옵션 황의조 "감독님 믿음에 보답하겠다"

공격에서는 황의조(보르도)가 상대 수비 공략에 나선다. 황의조는 대표팀에서는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지만, 소속팀에서는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다. 벤투 감독은 매 소집 때마다 그의 포지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늘 대답은 같다. 벤투 감독은 "우리 팀에서 황의조의 자리는 무조건 스트라이커"라며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황의조는 A매치에서 총 10골을 기록 중인데 이중 9골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나왔

다. 사실상 한국의 최고 득점 옵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바논은 수비벽을 두껍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만은 않다. 기민한 움직임과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중요성이 더 높다. 황의조는 "레바논과의 경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점수를 높이고 빠른 속도로 공격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준비를 많이 했다. 공격수로서 팀을 위해 꼭 득점하고 싶다"고 강한 승리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은 경기 전날 이뤄지는 공식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베이스캠프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격전지로 이동한다. 황의조는 "감독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의 생각을 물어봤고 우리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사이영상 후보 중 유일한 좌완 류현진, '워렌 스판상' 불발되다니

(시즌 최고 좌완투수에게 주는 상)

탈삼진 앞선 페트릭 코빈 수상자로 오늘 사이영상 1위표 확보에 관심



류현진

류현진(32·LA 다저스)의 워렌 스판상 수상 불발은 아쉬움이 짙게 느껴진다. 워렌 스판상 선정 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페트릭 코빈(30·워싱턴)의 수상을 발표했다. 워렌 스판상은 양대 리그를 통틀어 한 시즌 최고 활약을 펼친 왼손 투수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통산 363승으로 메이저리그(ML) 좌완 최다에 올라있는 워렌

스판의 이름은 판이 상은 다스, 탈삼진, 평균자책점(ERA) 등 세 가지 지표가 기준이다.

코빈은 올해 33경기에서 14승 7패, ERA 3.25를 기록했다. 그가 기록한 238삼진은 좌완 최다다. 류현진은 29경기에서 14승5패, ERA 2.32를 기록했다. 탈삼진은 163개로 코빈에 비해 떨어졌

지만 ERA에서 1점 이상 낮았다. 사이영상 경쟁에서 아메리칸리그를 포함한 최종 후보 6명 중 유일한 좌완인 류현진에게 아쉬움이 짙다.

남은 건 사이영상이다. ML 사무국은 14일 오전 사이영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사이영상 투표권을 지닌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30명 중 류현진에게 1위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건'이다. 역대 아시아 투수 가운데 1위표를 얻은 이는 아무도 없다. 1위표 7점, 2위표 4점, 3위표 3점, 4위표 1점, 5위표 1점을

더해 순위를 매기는데 아시아 선수 중 최고점은 2013년의 다르빗슈 유(93점)다. 미국 현지의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류현진이 아시아 최다 득표이자 최소 1위표를 석권한다면 2019년의 완벽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고의 활약을 펼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그의 행선지에 미국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MLB트레이드워머스'는 13일 FA 상위 10명의 행선지 투표를 진행했다. 6886명의 팬들이 참여한 가운데 45.6%가 다저스 잔류를 점했다. 텍사스(8.7%), LA 에인절스(6.2%)가 그 뒤를 따른다. 시즌은 끝났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뜨거운 사이다다.

최희래 기자 ing17@donga.com

투표조작 수사, 엠넷 모든 오디션프로로 확대?

(프로듀스 시리즈)

엠넷 부문 대표 신형관 부사장이도 입건 프로듀스 외에도 부정 있었는지 주목 수사 결과 따라서 범위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작사 CJ ENM의 부사장이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3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듀스48'과 '프로듀스X101' 조작과 관련해 입건한 10여명 가운데 CJ ENM 엠넷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형관 부사장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5일 신 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무

케이بل채널 엠넷의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파문이 과거 다른 오디션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부사장은 1997년 CJ 미디어(현 CJ ENM) 공채 1기로 입사해 직접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총괄국장 등을 지내며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프로듀스' 시리즈 말고도 엠넷의 모든 오디션프로그램에서도 부정행위가 벌어졌는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경찰은 "엠넷의 전체 오디션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프로듀스48' 및 '프로듀스X101'의 연출자 안준영 PD와 총괄프로듀서 김용범 CP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의 원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이날 "신 부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면서 "다만 수사 도중 신 부사장의 실명이 공개되고 압수수색만으로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다소 안타깝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